

중고령 근로자의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의 영향요인 비교: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한 검증*

한 태 영 신 교 수 이 주 일[†]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스피링크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에 입각하여 중고령 근로자의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을 고찰하는 것으로, 노년기 행동에 대한 참여 과정에 대한 동기화 과정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동기화 요소로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각각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을 연구하였으며, 이 세 요소가 노후준비라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노후준비의 세부요소가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검증하였다. 50~69세의 중고령 근로자 192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활동적 노년에 대해서는 주로 태도와 행동 통제감이 노후준비를 통해서 활동적 노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적 노년에 대해서는 규범과 행동 통제감이 노후준비를 매개로 생산적 노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 활동적 노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했을 때 간접효과가 유의미했으며, 생산적 노년에 대해서는 정서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했을 때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근로자의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중고령 근로자, 활동적 노년, 생산적 노년, 노후준비, 계획된 행동 이론

* 본 연구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609).

† 교신저자 : 이주일,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Tel : 033-248-1723, E-mail : jilee@hallym.ac.kr

서론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는 보편적인 추세이며,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부양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통계청, 201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3년 기준 월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원, 2인 가구 97만원인데 비해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인 가구 33만원, 2인 가구 57만원으로 추정되어 노인인구의 빈곤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석, 2014).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령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가교 고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방하남, 신인철, 2011). 최근의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8%가 ‘노후준비 부족’을 지목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부족을 우려했으며, 60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60%, 50대 응답자는 약 36%가 경제적 행복에 노후준비 부족이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동열, 2016). 이러한 현황을 고려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퇴직과 은퇴에 가까워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향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더 높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고령자의 향후 삶의 문제에 대해 사회와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고령자 개인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인구문제와 반대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제학 분야에서는

신멜서스 트랩을 넘어서기 위해서 ‘재산업화’가 필요하며 개인에게 ‘이모작 인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태유, 2013).

또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수명이 늘어나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후를 준비하고 인생 후반기를 역동적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연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서 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대해 관심이 치중되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는 궁극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노년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노인이 되어서도 주도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성혜영, 조희선, 2006; Ranzijn, 2002). 노년기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노년기의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개념이다. 즉, 활동이론은 사회적인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심리적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본다(조성남,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의 노후준비가 건강한 노년기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노년기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통제감 및 주변으로부터 인식하는 규범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지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긍정적인 노년기 모습에 대한 개인의 동기가 노후준비를 거쳐 실제로 건강한 노년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노년기 모습에 대한 다양한 논점에 대해서는 노후준비의 세부요소들의 매개효과를 차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용적인 시사점을 구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준비는 고령화

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자주 논의되지만 심리적으로 역동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적다. 또한 심리사회적 준비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 일과 관련된 사회 관계망이 축소될 수 있고(한경혜, 손정연, 2012) 그 결과 노년기의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범위의 노후준비의 효과와 세부적인 측면에서 노년기 행동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이 고령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내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노년기의 삶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바로 전 연령기인 중고령 시기에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인생적 발달(life-span development)로 볼 때 중고령 시기에 노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하고 준비 수준이 높을 때 자연스럽게 노년의 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노년기를 바라보는 중고령자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원이 많으면, 그 후에 실제로 노년기가 도래했을 때 여유를 갖고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만족하여 인생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나향진, 2004). 그런데 노년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먼저 바람직한 노년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는 Erikson의 발달이론으로 보면 마지막 단계인 통합 대 절망(integrity vs. despair)의 시기이다. 노년기에 일생을 통합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논의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제안하였다.

바람직한 노년기의 모습에 대해서 노년기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활동적 노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WHO, 2002),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하는 노년기 삶을 강조하는 생산적 노년을 제안하기도 한다(OECD, 1998). 활동적 노년은 보다 일상의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생산적 노년은 경제적 활동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노년기의 특징과 행동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상적인 모습의 노년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슬로건을 바탕으로 논쟁이 있어 왔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담론이 연구 영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노년기의 모습이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도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활동적 노년(active ageing)이란 노인이 된 후에도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 건강,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WHO, 2002). 활동적 노년의 구성요소 중 건강과 안전은 노인의 활동을 의미하기 보다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환경적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노년 개인의 활동은 참여 요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활동적 노년은 노인이 되어서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활동이론은 역할상실이나 사회적 참여에서 제약을 받게 되면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이 낮아지므로, 사회적 관계를 갖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조성남, 2004). 그리고 노년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질을 증진 시켜주며,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Glass, Leon, Marrotoli, & Berkman, 1999).

Havighurst(1968)는 개인의 성격이 강인하고 유연하면서 사회적 환경이 지지적이고, 신체가 건강하면 성공적으로 노년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Havighurst는 중년의 활동성이 노년이 되더라도 감소되지 않고 이전의 활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성공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노인의 개인적 심리 특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활동적 노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중시하는 여가활동은 퇴직 후 노년의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의 대다수는 사회 관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은퇴 이후 여가활동은 허탈감이나 고독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며, 여가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기분을 전환하며, 문화 생활에 대한 욕구 또한 충족할 수 있다(정옥분, 2009). 여가활동은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과 더 관련성이 있으며, 적극적 사교 활동이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조사, 친목계 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활동적 노년과 다소 다른 각도에서 생산적 노년(productive aging)이란 고령자의 생산성 및 생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가 생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개념이다(Butler & Gleason, 1985; 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에서 개인용). 급여를 받는 활동만을 생산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급여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생산적 활동으로 보는 보다 폭 넓은 관점도 있다(Rowe & Khan, 1997). 생산과 관련된 행동의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적 노년은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지향하면서 참여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최희경, 2010).

노년기에는 가족, 지역사회, 일터 등 생활영역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동이 있지만, 핵심적인 개념에 맞는 공통적인 생산적 노년의 요소는 목표지향활동과 경력개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지향활동은 유무급의 근로와 상관 없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며,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주일 등, 2011). 목표란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한덕용, 2012). 따라서 고령 근로자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목표지향활동과 함께 노년기에도 경제적 가치를 유지(또는 덜 쇠퇴)하도록 하는 행동은 경력개발활동이다. 경력개발활동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주일 등, 2011). 이러한 경력개발활동은 프로틴 경력(protean career) 관점을 취하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조직에서 지원하는 경력개발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중 고령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주된 경력에서 물러나서 가교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이현주, 한태영, 2014). 따라서 개인의 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생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 여

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급의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대체로 생산적 노년이란 개념은 사회에 대해 기여하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생산성에 입각하여 고령자를 평가할 경우 나이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년기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경제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전성기의 생산적 가치나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생산적 가치를 유지하는 지원체계가 더불어 개인이 활동적이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활동적 노년을 위한 조건과 중복되기도 한다(Hanka & Stucka, 2008).

이와 같이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이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지만, 개념적 차이는 모호하고 비교연구도 적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는 영역에서는 후세대를 위한 활동적 행동이기도 하고, 경제적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봉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예측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어떤 예측변인이 서로 다른 노년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비교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개념 간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개인의 동기적 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입각한 의지적 행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판단할 때는 신체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노년기 개인

의 주관적인 인식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적응을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Cernin, Lysack, & Lichtenberg, 2011). 따라서 바람직한 노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앞서 언급한 바람직한 노년기 행동의 개인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차원의 동기적 과정(즉, 행동의도)에 관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Ajzen(1991)은 기존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확장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안하였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Fishbein과 Ajzen(1975)이 제안한 것으로서 행동을 결정하는 근접 요인이 행동의 의도(intention)에 있다고 보았으며, 행동 의도란 행동을 실행하려고 하는 동기와 관련된 요인이므로 행동에 대한 근접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행동의도의 선행 변수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있다. 또한, Ajzen은 개인의 의지를 벗어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동 통제감을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 확장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는 행동의 의도를 반영하는 변인을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으로 구성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의도한 행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므로 건강, 소비 행동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한덕웅, 2012).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중고령자의 노년 행동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의도를 통해서 실제로 중고령

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과정을 예측하고자 하며, 일하는 중고령자가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행동의도가 강할수록 노후준비라는 계획적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관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노후준비라는 의지적 과정을 계획된 행동 이론의 틀 안에서 매개변인으로 검증하여, 동기적 요인인 행동의도가 노년기 행동을 예측하는 과정을 실제로 매개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매개변인인 노후준비의 세부적인 측면(즉,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및 정서적 측면) 중에서 어떤 측면이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이르는 과정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은 향후 정책 수립과 중고령 근로자의 노년기를 위해 일터의 환경을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론에 의거하여 중고령자의 활동적 노년 및 생산적 노년 각각에 대한 태도, 규범 및, 통제감이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태도(attitude)란 각 노년 행동에 대해 개인이 갖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는 평가적 심리상태이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이하 '규범'으로 사용)은 주변 사람들이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이라는 행동에 관해서 갖는 기대나 압력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란 그러한 행동의 수행이 자신의 통제력 하에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Bandura가 언급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행동에 대한 의도에 반영되므로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통제에 대한 신념, 즉,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성도 가능하다(Ajzen, 1991). 본 연구는 이상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입각해서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을 예측하는 데 개인의 의도(즉, 노후준비)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노후준비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제안한 Ajzen은 이 모형에서 3 구성요인에 의해서 계산되는 행동의도는 다른 변인들의 설명력에 의해서 더 부가될 수 있다는 개방적인 견해로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의 여지를 남겼다(p. 119). 또한, 행동의도를 반영하는 세 변인이 행동을 일관성 있게 예측한다는 통합분석에도 불구하고(Armitage & Conner, 2001) 연구주제에 따라 여전히 비일관적인 결과도 보여주었다(Hagger et al., 2002). 이러한 비일관성에 대해 진행된 후속연구들에서는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행동으로 실행하기 전 단계에서 문제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Sheeran, 2002). 즉, 세 변인으로 반영된 행동의도-행동 간의 관계성은 의도의 문제(즉, 태도, 규범, 통제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기보다 중간 과정에 있는 매개변인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획된 행동이론이 제안하는 동기적 과정과 행동을 야기하는 의지적 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Armitage & Conner, 2001; Gollwitzer, 1999).

본 연구는 이러한 의지적 과정으로서 중고령층의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노후준비(post-retirement preparation)란 노년기를

보다 적응적으로 보내기 위하여 준비함으로써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구축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령, 2013; 박창제, 2008). 유사한 개념으로 퇴직준비나 은퇴준비가 있다. 은퇴와 퇴직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은퇴는 일반적으로 일이나 사회적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주, 한태영, 2014).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퇴직 후 완전은퇴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 소득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지속한다(방하남, 신인철, 2011). 따라서 퇴직준비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의 재취업 준비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은퇴준비는 사회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이후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완전은퇴 전 단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노년기를 고려하면서 적응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노후준비를 다룰 것이다.

Adams와 Rau(2011)는 인구고령화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시간적, 심리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여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퇴직 이후 생존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미리 퇴직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퇴직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노년의 적응수준이 향상된다(Wang, 2007).

본 연구는 노후준비를 Havighurst(1972: 조성남, 2004; 장휘숙, 2012에서 재인용)가 제안한 노년기 발달 과업 여섯 가지를 요약하여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준비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란 노년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현실적으로 준

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주성, 최수일, 2010; Donaldson, Earl, & Muratore, 2010). 즉,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을수록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용이하며, 여가생활을 누리거나, 대인관계 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Petkoska & Earl, 2009). 또한 경제적인 안녕감은 은퇴 후의 건강 및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Moen, 1996).

신체적 노후준비란 노후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면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건강수준과 노인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전미영, 2003; 김남진, 1999). 따라서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노년기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서적 노후준비란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정서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상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노년기의 정서적 안녕을 도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Carstensen(1992)은 사회정서 선택성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을 통해서 노년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임으로써 정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친밀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긍정적 정서 경험을 극대화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노후준비란 노후의 사회 활동을 위하여 미리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원보존이론은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Hobfoll, 2002).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망이 잘 구축되면, 노년이 된 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도움

을 받음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노후준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의지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행동의 의도는 준비(preparation)의 개념으로 전개되었으며, 신경심리학에서는 순간적인 동작에 대한 준비와 동작의 의도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혔다(Thoenissen & Zilles, 2001). 그러나 동기적 과정과 의지적 과정의 구분에 대한 관점을 따르는 연구들은 행동 전의 중간과정으로 계획(planning)의 효과를 검증하여 준비를 분리하였다. 즉, 단기적인 행동에서 행동의도의 영향력의 결과로 계획을 세우면 이를 통해 건강관리 같은 실제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Jones 등, 2001). 어떤 상황에 대한 준비란 현재의 동기를 넘어서 좀 더 나은 상태를 위한 의도이며, 다음 시기를 위한 준비는 그 시기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볼 때, 인생발달의 프레임에서 동기적 과정인 의도는 의지적 과정인 노후준비에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준비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 실증연구 측면에서,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인식하는 중 고령자는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신기, 조성숙, 2013). 그리고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신의 노후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노후준비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문조, 2009). 즉, 목표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목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특징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적/생산적 노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긍정적 노후 생활을 기대하고 노후를 준비하려 할 수 있다.

규범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동조

경향에 비추어 볼 수 있다(유진, 이선애, 2008). 즉, 사회적인 압력은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은 규범에 순응함으로써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에서 노년을 활동적 또는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느끼게 되면, 외부의 환경에 동조하여 노년의 활동성이나 생산성에 대해 당위적으로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노인은 행동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행동의 실천 정도가 더 높았다(강현욱, 김지태, 2009). 그러므로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높게 느끼는 사람은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될 수 있다. 즉, 활동적 또는 생산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통제감이 있는 사람은 노년기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결과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즉, 활동적/생산적 노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통제감을 가진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함으로써 활동적/생산적 노년의 행동에 대한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활동적 노년에 대한 태도, 규범, 통제는 노후준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생산적 노년에 대한 태도, 규범, 통제는 노후준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생애 관점에서 볼 때 노년기 시기에 보이는 활동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준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인 중고령

시기에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준비는 노년기 활동의 정도를 예측하는 매개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노후준비는 다양한 측면의 자원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노년이라는 시기는 원치 않는 시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면 노년기를 긍정적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1999).

Wang과 Shultz(2010)는 퇴직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원을 신체적 자원, 인지적 자원, 동기적 자원, 금전적 자원, 사회적 자원, 정서적 자원으로 보고, 자원의 변화에 따라 퇴직 과정이나 노년기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노후준비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면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신체적인 건강이 확보되므로 보다 활동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다(신수민, 2013).

이렇게 볼 때,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노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의지적 준비행동이며 노년기의 바람직한 적응에 대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을 이루어 가는 과정의 매개변인으로 볼 수 있다.

노후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원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행동이다. 성공적 노년은 주로 신체적 제약과 관련성이 많다는 연구를 볼 때(Debb & Jeste, 2006), 대표적인 노후준비 요소인 신체적 준비는 긍정적인 노년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추론할 수 있다. 사회보장을 구축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인 활동적 노년에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신체적 건강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그러나 노년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은 이와 함께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조건으로 여긴다. 따라서 활동적 노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관계와 여가 및 정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Bowling, 2008). 국내에서도 박현식(2012)은 정서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있어서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생활에서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급격한 변화를 늦추거나 줄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개인의 경제적 수준은 노년의 삶의 만족과 강한 관계를 갖는다(Adams & Rau, 2011). 높은 인지력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owe & Kahn, 1997). 그리고 노후준비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가교 일자리의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Granovetter, 1995).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노후준비는 활동적 노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노후준비는 생산적 노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활동적 또는 생산적 노년에 대한 태도, 규범, 및 통제감은 노후를 준비함으로써 노년 활동에 대한 참여의 의도로 나타난다. 즉, 노후 준비를 함으로써 노년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활동적 또는 생산적 노년을 보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동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도나 규범 또

는 통제감이 행동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동에 대한 의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변인인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노년기를 보다 활동적 또는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지각하며, 노년의 활동성이나 생산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개인은 노후를 준비함으로써 노년기의 활동성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의 강조점이 다르듯이, 이 두 노년에 대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는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각각이 갖는 특징에 따라 세부적인 노후준비의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의 하위요인별 효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두 노년의 개념의 기능적 변별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분매개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을 세부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활동적 노년의 하위 요인인 여가와 적극적 사교 활동은 대인 관계나 정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적 노년에 대해서는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생산적 노년의 하위 요인인 목표지향활동과 경력개발활동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보다 구직활동이 보다 적극적이라는 연구에 비취 볼 때(Jex, Wang, & Zarubin, 2007),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적 노년

및 생산적 노년과 노후준비의 세부 요인과 관련된 매개효과에 대하여 다음의 가설을 세웠다.

가설 5. 활동적 노년에 대한 태도,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활동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을 노후준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5-1. 활동적 노년에 대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는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설 6. 생산적 노년에 대한 태도,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생산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을 노후준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6-1. 생산적 노년에 대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는 경제적/신체적 노후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틀로 제시하자면,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심리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 과정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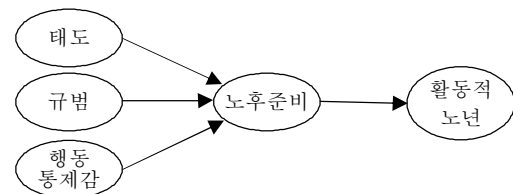


그림 1. 활동적 노년에 대한 개념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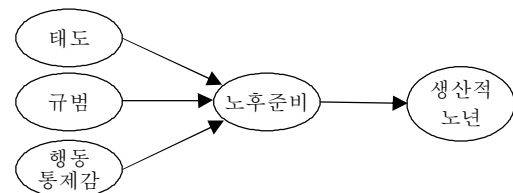


그림 2. 생산적 노년에 대한 개념적 모형

하여 개념적 흐름을 그림 1,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50세~69세의 중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50대를 고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체로 은퇴(퇴직) 준비에 대한 국가적 조사는 40~45세 전후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선제적인 준비는 노년의 활동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는 준비활동은 선행변인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Berkman, Ertel, & Glymour, 2011)을 반영하면 50대를 포함하는 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3세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방하남, 신인철, 2011), 완전 은퇴를 생각하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50대의 입장은 6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0대 고령근로자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과 활동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50~60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령 근로자의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고령화 사회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고용의 유형에 관계 없이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중고령자를 수집하

고, 50대와 60대는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층화표본추출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실제 조사는 2014년 4월 및 5월에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관의 면접원이 설문 문항을 읽어주며 응답을 받는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를 통해서 총 192 사례를 수집하였다.

측정 도구

활동적 노년

본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년을 생산적 노년과 함께 다루고 있다. 활동적 노년의 구성개념에서 참여 요인 중 가족 지원, 봉사 활동, 자기개발활동은 생산적 노년의 하위 요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적 노년과는 다르게 활동적 노년만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 사교활동과 여가활동을 활동적 노년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유경, 장재운, 한태영, 이주일(2014)이 개발한 활동적 노년 척도를 사용하여 활동적 노년에 대한 신뢰도는 안정적이었다($\alpha=.77$). 적극적 사교 활동 5문항($\alpha=.61$), 여가 활동 4문항($\alpha=.67$)으로 나누어지며, 문항의 예로는 “사교를 위한 모임(친목회, 동창회 등)에 참여한다(적극적 사교 활동)”, “취미 생활(음악 감상, 독서 등)을 즐긴다(여가 활동)”가 있다. 측정방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활동적 노년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활동적 노년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노년

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유경(2011)이 개발

한 생산적 노년 척도의 핵심 하위요인을 활용하였다. 생산적 노년에 대한 국내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생산적 노년의 하위 요인은 목표지향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된다(이주일 등, 2011). 하지만 가족지원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은 활동적 노년의 하위 요인인 ‘참여’ 중에서 가족지원, 봉사활동과 내용이 중복되며 해당 내용은 경제적 측면의 생산성이나 개인의 경력관련 요소를 명확히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유경 등,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년의 구성개념이 활동적 노년의 하위 요인과 중복되지 않게 하고, 생산적 노년의 특징을 보다 잘 반영하는 요인들로 구성개념을 좁은 범위에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목표지향활동과 경력개발활동을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생산적 노년의 신뢰도는 안정적이었으며($\alpha = .80$), 하위 요인으로 목표지향적 활동하기 5문항($\alpha = .56$), 경력개발 활동하기 5문항($\alpha = .80$)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목표지향적 활동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다(경력개발 활동하기)”가 있다. 측정방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목표지향적이며 경력개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목표지향적이지 않으며, 경력개발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태도, 규범, 통제)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각각에 대한 태도,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계획된 행동 이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각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Ajzen, 2002; Francis et al., 2004). 활동적 노년과 관련된 문항의 예로는 “내가 노년을 활동적으로 보내는 것은 좋다/나쁘다(태도)”, “가족, 친지, 친구, 일터의 동료는 내가 활동적으로 노년을 보내기 바란다(규범)”, “노년을 활동적으로 보낼지 말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통제)”가 있다. 측정방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높은 통제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주변으로부터 행동에 대한 압박을 적게 느끼며, 낮은 통제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활동적 노년에 대한 태도, 규범, 통제의 신뢰도는 각각 .78, .50, .73이었으며, 생산적 노년에 대한 태도, 규범, 통제의 신뢰도는 각각 .75, .63, .78이었다. 활동적 노년의 규범의 경우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이므로 분석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

노후준비의 네 가지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하여, 경제적 준비 6문항, 신체적 준비 5문항, 정서적 준비 5문항, 사회적 준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김재희, 김옥, 2013; 이미선, 2012; 김주성, 최수일, 2010; 김지영, 2009; 김가옥, 2009; 김기태, 2004; 황승일, 2000; 배계희, 1988; Petkoska & Earl, 2009). 문항의 예로는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보험이외에 매달 저축을 한다(경제적 노후준비)”,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무리하지 않는다(신체적 노후준비)”, “노후의 편안한 부부

관계를 위해 배우자와 대화하려고 노력한다(정서적 노후준비)”, “노년에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사회적 노후준비)” 등이 있다. 측정방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노후준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노후준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6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5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75, 신체적 노후준비는 .77, 정서적 노후준비는 .58, 사회적 노후준비는 .74이었으며, 노후준비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안정적이었다($\alpha=.87$).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 SPSS WIN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된 행동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 분석으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호상관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성별은 남자 109명(56.8%), 여자 83명(43.2%)이었으며,

표 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변인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성별 | | |
| 남자 | 109 | 56.77 |
| 여자 | 83 | 43.23 |
| 연령대 | | |
| 50-54세 | 20 | 10.42 |
| 55-59세 | 82 | 42.71 |
| 60-64세 | 45 | 23.44 |
| 65-69세 | 45 | 23.44 |
| 학력 | | |
| 중졸이하 | 49 | 25.52 |
| 고졸 | 111 | 57.81 |
| 전문대졸이상 | 32 | 16.67 |
| 혼인 상태 | | |
| 기혼 | 180 | 93.75 |
| 사별 | 12 | 6.25 |
| 본인 외 경제수입 | | |
| 있음 | 149 | 77.60 |
| 없음 | 43 | 22.40 |
| 월 평균 가계소득 | | |
| 100만원 미만 | 4 | 2.08 |
| 100-150만원 미만 | 24 | 12.5 |
| 150-200만원 미만 | 25 | 13.02 |
| 200-250만원 미만 | 25 | 13.02 |
| 250-300만원 미만 | 33 | 17.19 |
| 300만원 이상 | 81 | 42.19 |
| 고용형태 | | |
| 정규직 | 74 | 38.54 |
| 비정규직 | 118 | 61.46 |
| 근속여부 | | |
| 주된일자리 | 32 | 16.67 |
| 재취업 | 160 | 83.33 |

나이는 50~59세 102명(53.1%), 60~69세 90명(46.9%)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고졸 이하가 160명(83.3%), 전문대졸 이상이 32명(16.6%)이었으며, 특히 전체 표본 중 고졸이 111명(57.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혼인 상태는 기혼자가 180명(93.75%)으로 대부분이었다. 본인 외에도 경제수입이 있는 사람이 149명(77.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 평균 가계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81명(42.19%), 200~300만원 미만인 58명(30.21%), 200만원 미만이 53명(27.6%)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근로자 74명(38.5%), 비정규직 근로자 118명(61.5%)이었다. 그리고 재취업 근로자는 158명(82.2%), 주된 일자리 지속 근로자는 32명

(16.6%), 가정주부에서 취업한 사람은 2명(1%)이었다.

데이터의 정규성과 관련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활동적 노년의 태도, 생산적 노년의 규범 요인은 부적 편포를 보였으며, 생산적 노년의 경력개발 요인에는 정적 편포가 있었다.

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설과 비슷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활동적 노년에 대한 규범과 활동적 노년($r=.09, p=.220$) 및 노후준비($r=.13, p=.079$)는 각각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중고령 근로자는 노년을 활동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을 느

표 2. 기술통계치 및 상호상관

| 변인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활동적 노년 태도 | (.78) | | | | | | | | | | | | |
| 2. 활동적 노년 규범 | .26** | (.50) | | | | | | | | | | | |
| 3. 활동적 노년 통제 | .20** | .34** | (.73) | | | | | | | | | | |
| 4. 생산적 노년 태도 | .65** | .22** | .19** | (.75) | | | | | | | | | |
| 5. 생산적 노년 규범 | .11** | .39** | .43** | .31** | (.63) | | | | | | | | |
| 6. 생산적 노년 통제 | .15** | .25** | .66** | .31** | .58** | (.78) | | | | | | | |
| 7. 노후준비 | .27** | .13** | .48** | .29** | .39** | .65** | (.87) | | | | | | |
| 8. 경제적 노후준비 | .10** | .04** | .30** | .21** | .20** | .53** | .78** | (.75) | | | | | |
| 9. 신체적 노후준비 | .16** | .07** | .38** | .20** | .33** | .56** | .81** | .53** | (.77) | | | | |
| 10. 정서적 노후준비 | .28** | .21** | .49** | .21** | .29** | .48** | .72** | .40** | .48** | (.58) | | | |
| 11. 사회적 노후준비 | .28** | .07** | .25** | .32** | .29** | .50** | .72** | .56** | .46** | .45** | (.74) | | |
| 12. 활동적 노년 | .35** | .09** | .30** | .37** | .30** | .43** | .50** | .33** | .29** | .39** | .54** | (.77) | |
| 13. 생산적 노년 | .29** | .23** | .47** | .32** | .44** | .57** | .64** | .42** | .55** | .51** | .54** | .65** | (.80) |
| 평균 | 4.17 | 4.02 | 3.73 | 4.13 | 3.62 | 3.58 | 3.42 | 3.57 | 3.37 | 3.44 | 2.98 | 3.35 | 3.02 |
| 표준편차 | .45 | .43 | .55 | .43 | .54 | .60 | .48 | .68 | .64 | .52 | .78 | .60 | .55 |
| 왜도 | -2.54 | -1.14 | -1.77 | -1.63 | -3.12 | -1.26 | -2.74 | -5.88 | -3.49 | -.64 | -1.61 | .11 | 1.20 |
| 첨도 | -1.38 | -.16 | -.76 | 1.00 | .40 | -1.66 | -.30 | 2.07 | -.07 | -1.67 | -1.49 | -1.53 | -1.63 |

주. N=192, * $p < .05$, ** $p < .01$; 괄호 안은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끼는 정도는 노후준비를 통해서 활동적 노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가설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활동적 노년에 대한 연구 모형(그림 3)의 적합도는 $\chi^2 = 265.797(df=125)$, $RMSEA=.077$, $GFI=.869$, $CFI=.857$, $TLI=.825$ 였으며, 생산적 노년에 대한 연구 모형(그림 4)의 적합도는 $\chi^2 = 338.881(df=160)$, $RMSEA=.077$, $GFI=.858$, $CFI=.866$, $TLI=.840$ 이었다. 두 모형 모두 적합도에 일관성을 보이며 수용할만한 수준이지만, 적합도가 안정적인 해석을 보장하는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표본수에 비해 측정 변인이 많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RMSEA$ 가 .08보다 낮은 것은 합리적인 근사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각각의 그림에 제시하였다. 노후준비가 활동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beta = .77$, $p < .001$)과 노후준비가 생산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beta = 1.20$, $p = .025$)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가설 1, 2가 지지되었다. 활동

적 노년에 대한 태도($\beta = .32$, $p = .004$)와 행동 통제감($\beta = .68$, $p < .001$)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활동적 노년에 대한 규범($\beta = -.36$, $p = .068$)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그림 3 참조).

생산적 노년의 경우, 규범($\beta = -.63$, $p = .015$)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행동 통제감($\beta = 1.27$, $p < .001$)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생산적 노년에 대한 태도($\beta = .15$, $p = .158$)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그림 4 참조).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각 연구 모형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각 표 3과 표 4와 같다. 활동적 노년에 대한 모형에서는 태도($\beta = .246$, $SE = .193$, $LL = .076$, $UL = .676$)와 행동 통제감($\beta = .524$, $SE = .340$, $LL = .279$, $UL = 1.317$)이 활동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을 노후준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리고 생산적 노년에 대한 모형에서는 규범($\beta = -.757$, $SE = 1.171$, $LL = -6.541$, $UL = -.163$)과 행동 통제감($\beta = 1.528$, $SE = 1.815$, $LL =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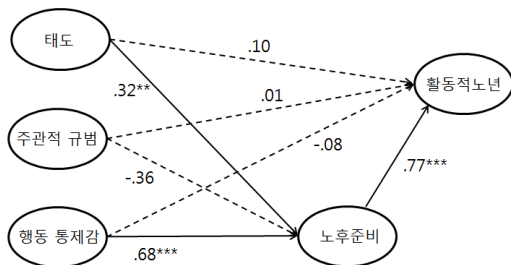


그림 3. 활동적 노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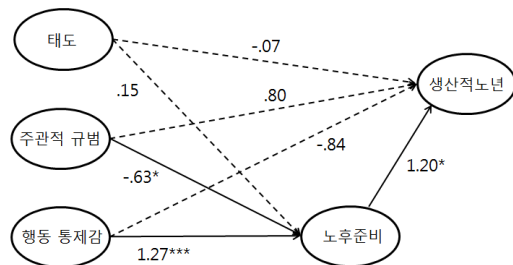


그림 4. 생산적 노년 모형

표 3. 활동적 노년에 대한 노후준비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 효과 | 경로 | 추정치 | SE | p | 95% CI | |
|------|------------------------|-------|------|------|--------|-------|
| | | | | | LL | UL |
| 간접효과 | 태도 → 노후준비 → 활동적 노년 | .246 | .193 | .005 | .076 | .676 |
| | 규범 → 노후준비 → 활동적 노년 | -.276 | .319 | .050 | -1.006 | .000 |
| | 행동 통제감 → 노후준비 → 활동적 노년 | .524 | .340 | .002 | .279 | 1.317 |
| 총 효과 | 태도 → 활동적 노년 | .345 | .140 | .007 | .106 | .661 |
| | 규범 → 활동적 노년 | -.270 | .224 | .104 | -.853 | .050 |
| | 행동 통제감 → 활동적 노년 | .443 | .191 | .003 | .134 | .915 |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회 실시함.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표준화된 자료임; CI=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LL=lower limit(하한계), UL=upper limit(상한계)

표 4. 생산적 노년에 대한 노후준비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 효과 | 경로 | 추정치 | SE | p | 95% CI | |
|------|------------------------|-------|-------|------|--------|-------|
| | | | | | LL | UL |
| 간접효과 | 태도 → 노후준비 → 생산적 노년 | .178 | .345 | .115 | -.041 | 1.593 |
| | 규범 → 노후준비 → 생산적 노년 | -.757 | 1.171 | .002 | -6.541 | -.163 |
| | 행동 통제감 → 노후준비 → 생산적 노년 | 1.528 | 1.815 | .000 | .538 | 9.984 |
| 총 효과 | 태도 → 생산적 노년 | .111 | .127 | .365 | -.130 | .332 |
| | 규범 → 생산적 노년 | .042 | .283 | .905 | -.588 | .451 |
| | 행동 통제감 → 생산적 노년 | .690 | .251 | .006 | .264 | 1.162 |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회 실시함.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표준화된 자료임

UL=9.984)이 생산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을 노후준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따라서 가설 5, 6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정리해 보면, 기본적인 연구 모형에서 노후준비는 매개효과가 있으며, 특히 행동 통제감은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모두에 대해서 노후준비를 통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태도와 규범에 대해서는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간에는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활동적 노년에 대해서는 태도가,

생산적 노년에 대해서는 규범이 노후준비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단계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의 각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의 유형에 따라 연구모형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세부 분석 결과는 그림 5~12와 같다.

활동적 노년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 그림 5와 같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설

정했을 때 태도는 직접적으로 활동적 노년에 영향을 미쳤으나($\beta=.35, p=.007$), 행동 통제감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188, SE=.217, LL=-.029, UL=.510$). 신체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 태도는 직접적으로 활동적 노년에 영향을 미쳤으나($\beta=.39, p=.003$), 신체적 노후준비가 활동적 노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신체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리고 정서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태도($\beta=.255, SE=.318, LL=-.001, UL=1.386$)와 행동 통제감($\beta=.540, SE=.688, LL=-.047, UL=2.731$)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7). 한편 사회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 활동적 노년에 대한 태도($\beta=.220, SE=.110, LL=.066, UL=.511$)와 행동 통제감($\beta=.381, SE=.176, LL=.176, UL=.833$)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그림 8). 즉, 활동적 노년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적 노년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 경제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 규범($\beta=-.75, p=.010$)은 부적인 영향을, 행동 통제감($\beta=1.22, p<.001$)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생산적 노년에 대해 경제적 노후준비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경제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신체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해 규범($\beta=-.52, p=.043$)은 부적인 영향을, 행동 통제감($\beta=1.16, p<.001$)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생산적 노년에 대해 신체적 노후준비를 통한 규범($\beta=-.233, SE=.684, LL=-2.317, UL=.029$)과 행동 통제

감($\beta=.516, SE=.943, LL=-.058, UL=2.887$)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10). 한편 생산적 노년에 대한 행동 통제감($\beta=.634, SE=.957, LL=.185, UL=2.918$)은 정서적 노후준비를 통해서 생산적 노년에 대해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또한 생산적 노년에 대한 규범($\beta=-.292, SE=.738, LL=-2.456, UL=-.029$)과 행동 통제감($\beta=.548, SE=.907, LL=.078, UL=2.750$)은 사회적 노후준비를 통해서 생산적 노년에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즉, 생산적 노년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에서는 정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는 노후준비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활동적 노년에 대한 모형에서는 태도, 그리고 생산적 노년에 대한 모형에서는 규범의 영향력이 각 연구모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결과 양쪽 모형 모두 경제적 및 신체적 노후준비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활동적 노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노년에 대해서는 정서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의 활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회적 노후준비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및 신체적 노후준비는 활동적 및 생산적 노년에 대한 준비로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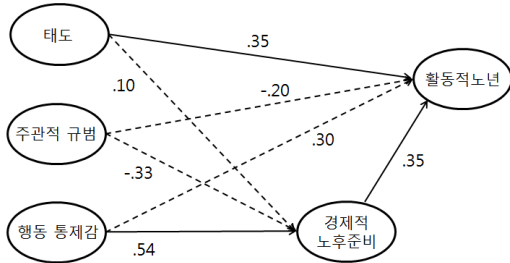


그림 5. 활동적 노년 경제적 노후준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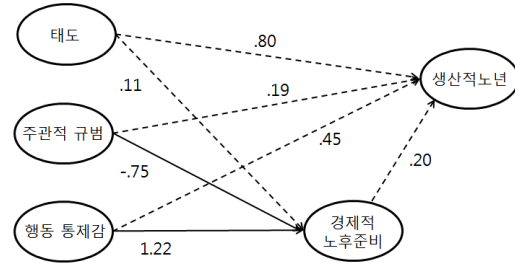


그림 9. 생산적 노년 경제적 노후준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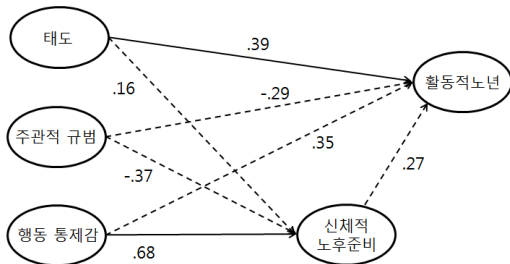


그림 6. 활동적 노년 신체적 노후준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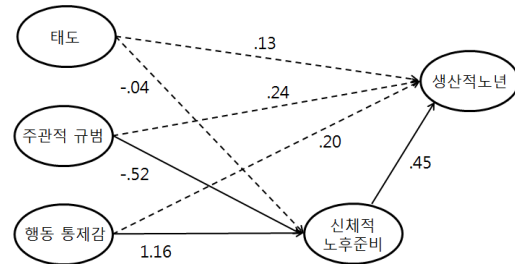


그림 10. 생산적 노년 신체적 노후준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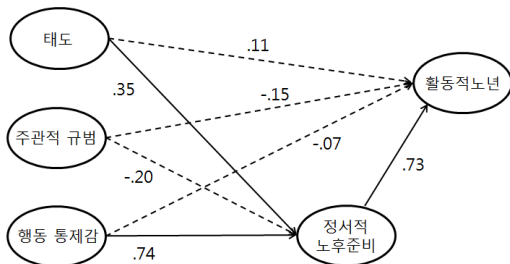


그림 7. 활동적 노년 정서적 노후준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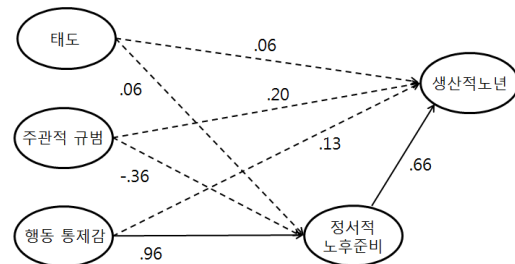


그림 11. 생산적 노년 정서적 노후준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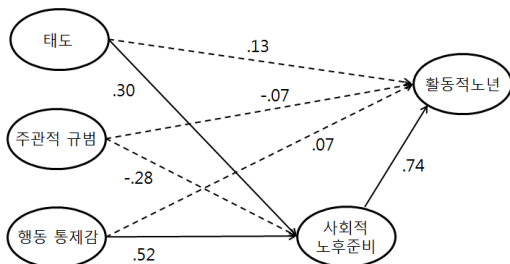


그림 8. 활동적 노년 사회적 노후준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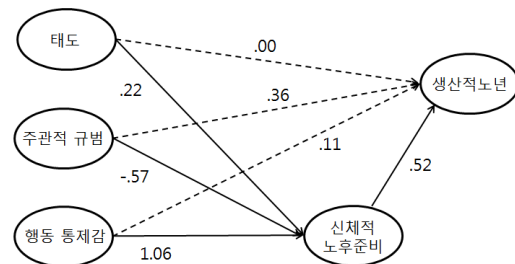


그림 12. 생산적 노년 사회적 노후준비 매개 모형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임

논 의

본 연구는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각각에 대한 태도, 규범, 행동 통제감이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계획된 행동에 대한 의도로서 노후준비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다음 노후준비의 네 하위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해 노후준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도, 규범, 통제감으로 반영하여 행동의도로 본 동기적 과정은 노후를 준비하는 행동과정을 통해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구축하는 의지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노년의 행동범위는 노후준비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목표 행동에 대한 태도와 규범의 상대적 크기는 두 노년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 노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준비를 함으로써 활동적 노년을 보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적 노년이라는 자발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활동적 노년을 지향하는 노후준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동적 노년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한 적극적 사교나 여가와 같은 활동은 환경적인 압박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개인의 주도성이 외적인 환경의 영향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주관적인 규범보다도

태도가 노후준비를 통해서 활동적 노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년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받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규범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유진, 이선애, 2008; Brenes, Strube, & Storandt, 1998), 본 연구에서도 생산적 노년에 대한 규범은 노후준비($r=.39, p<.01$)나 생산적 노년($r=.44, p<.01$)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하면 규범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산적 노년은 경력개발과 목표지향 활동이다. 즉, 외적인 압박이 있으면 자기 주도성이 약화되어 생산적 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 활동에 대한 주변의 압박이 적다고 느낄 때 생산적 노년 행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후준비를 더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두 연구모형에 대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세부적으로 각각 살펴본 결과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에서 발견된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노후준비만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활동적 및 생산적 노년 모두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활동적 또는 생산적 노년 활동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은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점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는 활동적 및 생산적 노년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경제적 요소와 건강 요인은 목표 행동에 대한 환경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및 신체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은 개인의 자발성이 제약요인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환경적 제약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자발성에 따라 활동적 및 생산적 노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생산적 노년에서는 세부 노후준비에 따라 전체적인 노후준비의 매개효과와는 양상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노후준비는 생산적 노년에 대한 태도와 규범 그리고 행동 통제감 모두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도와 규범 그리고 통제의 복합적인 영향력에 의해 사회적 노후준비가 유발되며 노후준비의 결과 목표지향 및 경력개발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노년기에는 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타의에 의한 압박보다는 자율적이며, 미래 활동에 대한 통제감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다. 즉, 노년기를 생산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압박을 덜 받고 통제감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준비활동을 더 함으로써 노후의 생산적 활동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Granovetter, 1995). 한편 정서적 노후준비의 경우에는 행동 통제감의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노년기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통제감이 높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통제감을 발현할 수 있는 가족과 정서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며, 가족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함으로써 생산적 노년의 모습을 강화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두 가지 연구모형 모두에서 행동 통제감은 노후준비를 매개로 하여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행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거나 주변인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보다도 행동 통제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제감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제감이 높은 개인은 과업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Spector, 1982). 즉, 미래 행동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자기 확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표 행동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의지적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두 노후 행동이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의 구성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보다 세밀하게 나누어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구성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최희경, 2010).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연결망(nomological network) 측면에서 관련변인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비교 연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각각에 대해 계획 행동 이론의 모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활동적 노년은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의 활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생산적 노년은 노인의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따라서 활동적 노년에 대한 과정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과정에 대해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셋째,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 각각에 대한 행동 통제감은 모두 노후준비를 통해서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각각 일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의지적 과정이 나타남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중고령 근로자가 노년기 생활에 대한 통제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노후준비를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해 계획하는 과정인 의지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중단 연구를 위한 횡단 설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단 연구는 오랜 기간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므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느냐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향후 활동적 노년이나 생산적 노년에 대한 중단 연구에서 개인의 인지적 과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는 계획된 행동과는 관련 없이 활동적 노년에 대한 태도가 직접적으로 목표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는 활동적 노년에 대한 제약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측면의 준비는 계획적 준비와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Ilmarinen(2011: 황기돈, 2013에서 재인용)은 Ilmarinen-Richenhagen 그래프를 통해서 개인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에서도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병행할 때 작업능력의 감소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작업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작업

능력은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작업능력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작업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보다 사교 활동과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eitsamo & Ilmarinen, 1997). 따라서 중고령 근로자의 건강을 사회와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향후 개인의 활동적 노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활동적 노년에 있어서 정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사회적 관계망 강화는 활동적 노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고령 근로자는 완전 은퇴를 앞두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 일과 관련된 사회 관계망이 축소될 수 있으며(한경혜, 손정연, 2012), 그 결과 노년기의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 근로자가 정서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또는 조직차원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중고령 근로자가 조직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력이 풍부한 중고령 근로자를 해당 직무에 대한 멘토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적 및 생산적 노년에 이르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했지만, 본질적으로 횡단 연구 설계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설계에 기반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시점의 행동을 측정하고자 했지만,

동일한 응답자가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에 대해 반응하였으므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사후 검증으로 그림 3, 4의 분석에 사용된 측정치들을 대상으로 각각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하나만 도출된 경우는 없었으며, 한 요인의 설명력도 각각 총 분산의 25.8%와 22.2%에 불과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중단 설계를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활동적 및 생산적 노년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활동적 노년에 대한 모형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 생산적 노년에 대한 모형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각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노년은 자기계발과 관련된 특징을 보이므로 일 관련 요인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생산적 노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후준비와 활동적 노년 또는 생산적 노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을 밝혀낸다면,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한 행동 예측은 합리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장애요인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이 듦’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일 때는 정서가 야기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인지적인 모형은 정서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Conner & Armitage, 1998). 중고령 근로자에게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생산적 역할을 멈춘

다는 것이므로 남지 않은 생애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모형을 통해 노년기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에서는 정서가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고령 근로자의 노년기 행동을 예측하고자 할 때, 중요한 장애요인은 건강이다. 자신의 인지적 판단에 의한 동기적 과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다. 작업능력 수준은 작업 능력 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미래 연구는 다른 노후준비에 실제 건강이나 작업능력이 얼마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연구 모형의 적합도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간명도가 높은 모형이 적합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본 모형에서는 측정 변인의 수가 많았으므로 적합도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일과 관련된 특성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다양한 환경 변인들을 통제하고, 중고령자의 일 관련 특징들을 적극적인 연구변인으로 반영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조직이나 정책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기, 조성숙 (2013).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디지털정책연구*, 11(11), 117-132.
- 강현욱, 김지태 (2009). 노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3), 57-68.
- 김가옥 (2009). 성인기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의식과 행동.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석 (2014).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41호. *현대경제연구원*.
- 김기태 (2004).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진 (1999). 규칙적인 운동 참여 여부와 그 정도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3), 51-64.
- 김동열 (2016).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노후준비 부족’, *경제주평* 16-2호, *현대경제연구원*.
- 김미령 (2013).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2, 257-287.
- 김재희, 김 욱 (2013). 노인의 노후준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2, 231-256.
- 김주성, 최수일 (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 김지영 (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유 (2013). 은퇴가 없는 나라: 국가 경제를 이모작 하라. *삼성경제연구소*.
- 나향진 (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53-70.
-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박현식 (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58, 281-302.
- 방하남, 신인철 (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학분석. *한국사회학*, 45(1), 73-108.
- 배계희 (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 (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보건복지부 (2011).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혜영, 조희선 (2006). Rowe 와 Kahn 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신수민 (2013). 과거 노후준비가 노년기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4(3), 57-83.
- 유 경, 장재윤, 한태영, 이주일 (2014). 활동적 노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노년학*, 34(3), 613-630.
- 유 진, 이선애 (2008). 고령자 운동지속 행동의 사회심리적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28(4), 1213-1225.
- 이미선 (2012). 베이비붐세대의 노부모 부양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유경 (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

- 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
- 이현주, 한태영 (2014). 중장년 근로자의 퇴직 후 경력을 위한 주도적 경력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1), 221-248.
- 장휘숙 (2012).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제2판. 서울: 박영사.
- 전미영 (2003). 통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노인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23(3), 1-13.
- 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옥분 (2009).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조성남 (2004). 에이지붐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통계청 (2014). 2014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한경혜, 손정연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 경제적, 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91-330.
- 한덕웅 (2012). 인간의 동기심리. 박영사.
- 황기돈 (2013). 연령관리(Age Management) - 기업의 장년고용 촉진전략. 고용이슈 제6권, 6-28.
- 황승일 (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A., & Rau, B. L. (2011). Putting off tomorrow to do what you want today: planning for retirement. *American Psychologist*, 66(3), 180-19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2002).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71-499.
- Bowling, A. (2008). Enhancing later life: How older people perceive active ageing? *Aging & Mental Health*, 12(3), 293-301.
- Brenes, G. A., Strube, M. J., & Storandt, M. (1998).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exercise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24), 2274-229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Bollen & J.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Publications.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 331-338.
- Cernin, P. A., Lysack, C., & Lichtenberg, P. A. (2011). A Comparison of self-rated and objectively measured successful aging constructs in an urban sample of African American older adults, *Clinical Gerontologist*, 34(2), 89-102.
- Conner, M., & Armitage, C. J. (1998). Extending

-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and avenues for further researc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 1429-1464.
- Depp, C. A. & Jeste, D. V. (2006).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1), 6-20.
- Donaldson, T., Earl, J. K., & Muratore, A. M. (2010). Extending the integrated model of retirement adjustment: Incorporating mastery and retirement plann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279-289.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rancis, J., Eccles, M. P., Johnston, M., Walker, A. E., Grimshaw, J. M., Foy, R., Kaner, E. F. S., Smith, L. & Bonetti, D. (2004). *Constructing questionnair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anual for health services researchers*. Newcastle upon Tyne, UK: Centre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 Glass, T. A., de Leon, C. M., Marottoli, R. A., & Berkman, L. F. (1999). Population based study of social and productive activities as predictors of survival among elderly Americans. *British Medical Journal*, 319(7208), 478-483.
- Gollwitzer, P. M. (1999). Implementation intentions: Strong effects of simple plans. *American Psychologist*, 54, 493-503.
- Granovetter, M. (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racts and careers*(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gger, M. S., Chatzisarantis, N. L. D., & Biddle, S. J. H. (2002).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in physical activity: Predictive validity and the contribution of additional variable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4, 3-32.
- Hanka, K. & Stucka, S. (2008). Volunteer work, informal help, and care among the 50+ in Europe: Further evidence for 'linked' productive activities at older ages. *Social Science Research*, 37(4), 1280-1291.
- Havighurst, R. J. (1968).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8(2), 67-71.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4), 307-324.
- Jex, S. M., Wang, M., & Zarubin, A. (2007). Aging and occupational health. *Aging and Work in the 21st Century*, 199-223.
- Jones, F., Abraham, C., Harris, P., Schulz, J., & Crispin, C. (2001). From knowledge to action regulation: Modeling the cognitive prerequisites of sun screen use in Australian and UK samples. *Psychology and Health*, 16, 191-206.
- Moen, P. (1996).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retirement, gender, and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 131.
- OECD (199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OECD.
- Petkoska, J., & Earl, J. K. (2009).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n retirement planning. *Psychology and*

- Aging*, 24(1), 245-251.
- Ranzijn, R. (2002). The potential of older adults to enhance community quality of life: Links between positive psychology and productive aging. *Ageing International*, 27(2), 30-55.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Seitsamo, J., & Ilmarinen, J. (1997). Life-style, aging and work ability among active Finnish workers in 1981-1992.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20-26.
- Sheeran, P. (2002).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 1-36.
- Spector, P. E. (1982). Behavior in organizations as a function of employee's locus of control. *Psychological Bulletin*, 91(3), 482.
- Toni, I., Thoenissen, D., & Zilles, K. (2001). Movement preparation and motor intention. *Neuroimage*, 14(1), S110-S117.
- Wang, M. (2007). Profiling retirees in the retirement transition and adjustment process: examining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retiree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2), 455-474.
- Wang, M., & Shultz, K. S. (2010). Employee retirement: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 *Journal of Management*, 36(1), 172-206.
-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HO.

논문 투고일 : 2015. 09. 15

1차 심사일 : 2015. 09. 25

게재 확정일 : 2016. 04. 04

The Mediation Effects of Post-retirement Preparation on Active Ageing and Productive Aging: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ae Young, Han

Kwangwoon University

Kyo Soo, Shin

SPIRINK

Juil, Rie

Hally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rational process of active ageing and productive aging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effect of post-retirement may be influenced by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r old aged workers, then we tested the effect of mediating role of post-retirement preparation on active ageing and productive aging. And we conducted additional analyses of mediating role of post-retirement preparation respectively. Conducting a survey research to 192 employed old aged workers, the data was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found the positive effects of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active ageing through post-retirement preparation. There were negative effect of subjective norms and positive effect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oductive aging through post-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additional analyse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ost-retirement preparation was significant on active age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and social post-retirement preparation was significant on productive aging.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 findings.

Key words : Active ageing, Productive aging, Post-retirement prepara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